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 발족

특수부대·경찰 출신 봉사단원 110명 확보 국제 NGO와 연대... 국내외서 활동 계획

"국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으로 연락주세요"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구조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될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이 7월 26일 평택 법장사에서 결성법회와 함께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된 재난구조봉사단은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의 피해에 국가적 재난과 대형사고 및 테러 등 사회적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전문 구조단으로도 활동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봉사단의 구성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단원직 총재로 추대하고, 사회부장 무원 스님이 단장을 맡는다.

또한 천태종총무원 사회부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전국 광역시별 지부와 지회를 구축해 전국망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모집된 봉사단원은 대략 110명 정도다.

SSU(Ship Salvage Unit, 해군해난구조대) 전우회 소속 불자 회원 60

여명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교계 언론 광고를 통해 모집한 60여 천태종 종도까지 합한 숫자다.

특히 천태종 사회부 산하에는 현재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인천 황룡사, 분당 대광사, 포항 황해사 등 5곳 정도의 지부가 설치돼 있다. 단장 무원 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한 사람당 5~10명 정도 단원들을 모집해 본격활동에 들어가는 9월까지 2백명 정도 규모의 봉사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봉사단외에도 실무운영팀들을 이담안으로 조직하고 각 지부지회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난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난구조봉사단을 파견해 국제 NGO단체와 연대활동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재난은 SSU 회원들이 맡고, 일반재난은 천태종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맡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난의 성격에 관계없이 서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은 7월 26일 결성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로 인력지원을 해 합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봉사단원 자격도 해병대,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 출신을 비롯해 소방서, 방재청, 경찰 출신자들로 제한했다.

천태종은 재난구조봉사가 특수 전문과정이라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해 봉사자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요 광역시별로 구성할 지부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들이 매일 매일의 활동사항을 본부에 보고

하는 절차를 통해 봉사단을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앞으로 천태종 재난구조봉사단은 기본 재해구조 업무외에도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중 청소 △한강 및 전국의 하천 살리기 운동 △해상에서 파손된 선박 인계작업 △해저에 있는 주요 물건 인양 작업 등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성법회에는 SSU(Ship Salvage Unit, 해군해난구조대) 전우회 소속 회원 30여 명과 일반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원효종 중흥서리 직대 향운 총무원장 말아

원효종 중앙총회는 7월 15일 열린 임시중앙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중흥 스님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중흥에 따라 새 중흥 선출시까지 총무원장 향운 스님을 중흥서리 직무 대행에 임명키로 결의했다.

또한 원효종 중앙총회는 이날 중단 규정원장으로 선임된 해인 스님을 승격 허위사실 보고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김주일 기자

총지중 경로수련법회

총지중은 8월 30·31일 양일간 충남 아산 도교유스호텔에서 각 사원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 6회 경로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법회에서는 우승 트리원장 법문에 이어 예불과 교리특강, 연예인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02)552-1080 김주일 기자

울릉도서 '독도 아리랑' 합창

8월 2~4일 회당문화축제

울릉도 지역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제 6회 회당문화축제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울릉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울릉군 등이 후원하는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성종 회당 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2박 3일 동안 열린다.

'독도아리랑'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당문화축제는 8월 2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수비하는 군부대원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3일에는 도동항 가설무대에서 회당문화축제 기념행사와 풍등날리기, 장사익, 한영애씨 등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한 각종 독도사랑 이벤트행사 등이 마련된다. 또 행사기간 동안 진각종

서울청년회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소광등 달기, 독도사랑 전각탑본 등의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진각복지재단은 지난 6월 19일 울릉군으로부터 수탁 받은 보육시설 '꿈나무 어린이집' 개원식을 8월 2일 오후 4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 본격 가동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준비될 전망이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 정사)은 7월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통리원 2층 회의실에서 제 3회 중무회의를 갖고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념사업 기본 추진안을 마련했다. 기념사

업 준비위원회는 총무원장 직속기구로서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정해 기념사업회 명칭과 기구 등을 확정하는 한편 10월 중 기념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새터민 템플스테이 8월 2~3일 원주 성문사서

천태종은 8월 2~3일 양일간 원주 성문사서 자유와 평화를 찾아 사신을 넘은 새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3회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나눔머나나되기운동본부와 천태종 사회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의식, 관음정근, 다도체험 등을 불교문화와 습의의식 체험을 비롯해 촛불기도, 우서쓰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비구니회 군포교 나섰다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

전계사에 회장 명성 스님 지도부 대거 참석 격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펼쳐 화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7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700만원의 후원금과 초코파이 100박스를 호국 연무사에 전달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회장 명성, 총무원장 운달, 설의부장 성정, 재무부장 명수, 법륜사 주지 혜광 스님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군포교 활성화에 대한 전국비구니회의 의지를 드러냈다.

회장 명성 스님을 전계사로 수계를 받은 장병 2천여명은 오계를 받들고 불자로서 건장하고 밝게 군생활을 마치고서 되원했다.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가 생긴 이래 비구니 스님이 전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



7월 22일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전계사(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이 장병들에게 수계를 나누어 주고 있다.

음이다. 수계법회에 이어 펼쳐진 2부 공인법회에서는 의정부 및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울

동, 춤,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수계장병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올해초 회장 명성 스님이 술선수법으로 군포교를 위해 5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임원들이 심심일만 모금

해 4월 19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1300여만원의 후원금을 보

시한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전국비구니회에 전국 15개 통합 병원에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위촉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올해초 회장 명성 스님이 술선수법으로 군포교를 위해 5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임원들이 심심일만 모금

명성 스님은 "군포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군포교 현실은 많이 열악한 것 같다"며 "향후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위

문법회, 비구니 스님 민간인 법사 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

면 스님은 이날 수계법회에 동참해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군포교에 열정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는 매달 마지막째주 토요일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평균 2천여 불자 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어 사찰, 기업 등의 후원으로 법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봉사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지에 후원품 전달.
 -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인 동참 당신의 후원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ARS : 060-700-0108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명처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비용 영표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든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X 67(세로) X 150(높이)cm
-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본관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 (직), 2004-8219 (현대불교 영업1팀)